

보령시의회 제245회 임시회 개회, 적극적인 의정활동 돋보여

- 조례안 및 제2회 추경 예산안 등 안건 처리, 예결특위 등 3개 특별위원회 구성
- 김정훈, 추보라 의원 5분 발언, “죽정동 산책로 개선”, “여성친화도시 조성 발전 방안”
- 박상모 의장 결의문 채택, “가축분뇨 처리시설 등 시·군 경계 환경 위해시설 설치 반대”

보령시의회(의장 박상모)는 지난 18일 제245회 임시회를 열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쳤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9일간의 일정으로 조례안 등 21건의 안건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다양한 안건을 처리한다.

첫날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보령댐 피해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다뤘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김정훈, 백성현, 최은순, 서경옥, 조장현, 추보라 의원으로, 윤리특별위원회는 김충호, 최은순, 이정근, 조장현, 김재관, 서경옥, 추보라 의원으로, 보령댐 피해대책 특별위원회는 김정훈, 추보라, 김충호, 이정근, 백영창, 김재관 의원으로 각각 구성됐다.



▲제245회 임시회 개회



▲죽정동 사업 예정지 현장 방문

19일에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안 등 21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22일과 23일 양일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예비 심사했다.

특히 2022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면서는 취득 예정 토지인 죽정동 주민센터 조성사업 예정지를 현장 방문하며 안건 심사에 힘을 쏟았다.

24일과 25일에는 예결특위에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을 심사할 예정이며,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에 따르면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총 12,233억 원으로 지난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1,390억 원이 증가한 규모이다.

회기가 끝나는 26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김정훈 의원과 추보라 의원의 5분 발언이 있을 예정이다.

김정훈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죽정동 지역이 약 7,500명이 거주하는 보령시 최대 인구 밀집 지역이며, 이에 따라 부족한 공영주차장의 확보와 봉황산 숲길 등 산책로 개선 및 확대를 제안한다.

추보라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시민 체감도를 높이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발전방안을 제안한다.



▲김정훈 의원



▲추보라 의원

이어 박상모 의장이 대표발의한 “홍성축협 가축분뇨 공공 처리시설 신축 등 시·군 경계 환경 위해시설 설치 반대” 결의문을 채택할 예정이다.

박상모 의장은 “이번 임시회는 제9대 의회 출범 이후 첫 추가경정예산 심사 등 본격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할 수 있는 값진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우리 의회는 지난달 제9대 의회를 개원하며 선언한 소통하고 실천하는 의회로 거듭나기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다음 회기인 제246회 제1차 정례회는 9월 19일부터 23일까지 5일간 진행될 예정이다.

더 빠른 소식을 받으세요~

보령시 SNS 매체현황

(2022. 7. 31. 기준)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manseboryeongsi	팔로워 45,349명
	네이버블로그	https://blog.naver.com/boryeongsi	방문 10,837,195명
	네이버포스트	https://post.naver.com/boryeongsi	팔로워 3,746명
	유튜브	https://www.youtube.com/boryeongsi	구독 5,492명

	인스타그램	https://www.instagram.com/boryeongsi/	팔로워 11,436명
	카카오토리	https://story.kakao.com/ch/boryeong	구독 7,577명
	카카오TV	https://tv.kakao.com/channel/3154464	조회 9,008회
	카카오톡채널	https://pf.kakao.com/IAXPxb	친구 87,745명